

사회

■ EBS 장학퀴즈왕 된 광주일고 전교 1등 김진영군의 공부법

“학원 문턱도 안 밟아 봤다 비결은 학교수업 철저복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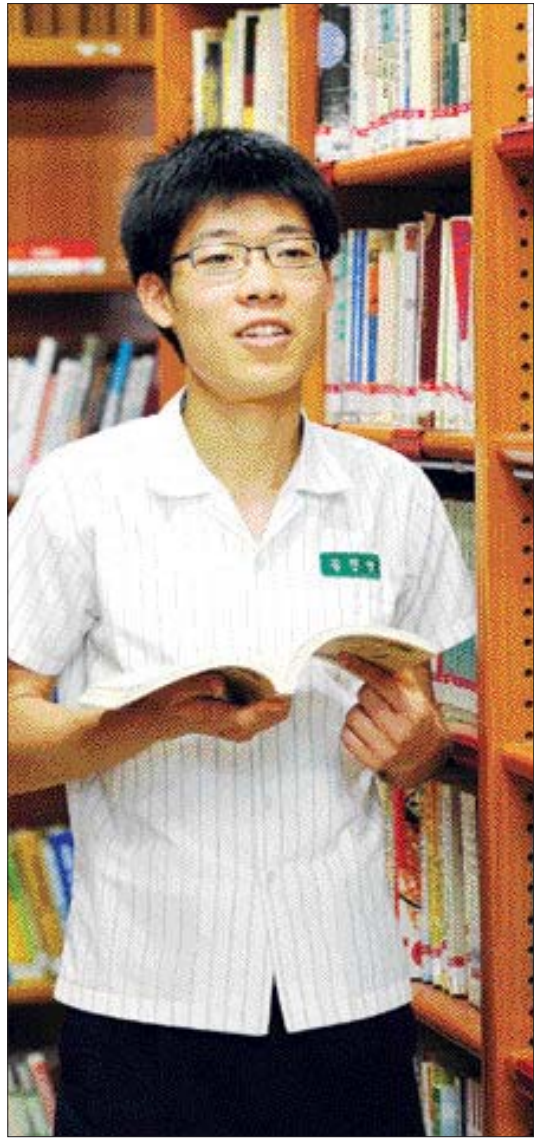
광주제일고 김진영(3학년)군은 ‘엄친아’ 중의 ‘엄친아’다. ‘엄친아’는 엄마 친구 아들의 줄임말로, 공부 등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운 학생을 비유하는 신조어다.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거의없는 김군은 리더십도 인정받아 전교 학생회장까지 맡고 있다.

여기에 전국 영재고교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EBS 장학퀴즈에서 2주 연속 퀴즈왕을 기록중이다.

전국 모의고사에서 490점대(500점 만점)를 오르내릴 정도로 최상위 성적을 자랑하는 김군은 한 번도 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 흔한 학습지조차 풀이본 적이 없다고 한다.

2남2녀 중 장남인 김군은 “아버지의 교육철학 중 하나가 사교육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라면서 “저를 비롯한 동생들 모두가 학원 근처에도 가지 못했지만, 성적은 모두 상위권에 있다”고 말했다.



광주제일고 김진영군이 5일 교내 도서관에서 포즈를 취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학기초 시험 안배운 것도 출제

선행학습 사교육 조장하는 셈

김군이 말하는 공교육 활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그날 배운 것은 그날 완벽하게 이해하고, 예습보다는 복습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군은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것을 미루지 않고, 꼭 ‘당일이해’를 원칙으로 하고있다”면서 “예습보다는 복습에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저만의 공부 비결”이라고 밝혔다.

김군이 전하는 또 다른 공부법은 수는 필수 과목이 아닌 한문 등 재량수업에도 열정을 다하라는 것과 영어 등 언어분야는 무조건 읽으면서 공부하고 원어인 교사를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 영어공부를 가장 싫어했다는 김군은 “중학교 때 쉬는 시간이면 원어인 교사를 매일 찾아가 대화를 나눈 게 영어를 정복한 비결”이라면서 “특히 영어 등 언어분야는 자신의 목소리를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읽으면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김군은 현 학교교육의 시험 시스템과 학원에서 실시되는 선행학습의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군은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초등 6학년과 중 3학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받을 때, (나는)그동안 학교에서 배운내용을 다시 복습했다”면서 “진학 후 학기초에는 이들에게 뒤졌지만, 상대적으로 처음 배운 수업(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진 덕분에 학기말이 되면 다시 앞설 수 있었다”며 선행학습 무용론을 펼쳤다.

매년 학기초면 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50점대의 낮은 성적을 받는다고 밝힌 김군은 “학기초가 되면 수행평가를 치르는데, 학원 등에서 선행학습을 받은

것을 감안해 배우지 않은 부분까지 출제된다”면서 “이 때문에 저처럼 학원을 다니지않은 학생들은 낮은 점수를 받게된다. 이는 암묵적으로 사교육을 받으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만큼 시험방식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군에게 미래의 꿈을 묻자 다소 철학적인 답변이 되돌아 왔다.

친구들의 무료 과외교사로도 활동중인 김군은 “경쟁보다는 상상하는 삶을 살고 싶고, 모두가 웃으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면서 “어떻게 살아야 이러한 삶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양심에 부끄럼 없게 사는 게 가장 큰 삶의 목표”라며 활짝 웃었다.

김병채 광주제일고 교장은 “학교공부에 충실하고, 복습을 중시하는 학습법은 다른 학생들도 본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기로 미납 '단전 위기' 금남지하상가 도시공사서 대납 관리 대행

금남지하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유)금남지하상가가 전기요금 장기체납으로 인해 단전할 위기에 처하자(본보 6월9일자 8면) 광주도시공사에 금남지하상가 관리를 대행하기로 했다.

5일 광주시는 “금남지하상가 단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관리권 인수는 애초 2011년 11월이지만 그에 앞서 이달부터 광주시도시공사가 관리를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시공사는 이달부터 (유)금남지하상가 대신 전기요금 납부하고, 미납점포의 경우 재분양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한국전력에서 해결책이 없을 경우 단전하겠다고 통보해 입주 점포들의 영업에 지장이 불가피해 임시방편으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하게 됐다”며 “대부분의 점주가 재분양을 하려고 해 대신 납부한 전기요금은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상무·풍암·침단·일곡지구 음란성 전단 뿌리 뽑는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불법주정차와 불법 유인물, 쓰레기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요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미관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이들 기관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는 한편 탄력근무제를 적용, 오전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신고심의 무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5일 광주시는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 각 지역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일상화되고 있으며 자율적인 청소 등에는 한계가 있어 강제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전

담담을 구성해 오는 12일부터 상무지구를 비롯한 풍암·침단·일곡지구 등 주요 택지개발구를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무단 투기 쓰레기, 노상 적치물, 음란성 전단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게 된다. 또 전담팀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협의를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강운대 광주시장 취임 이후 도시미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도심에 어지럽히는 불법 주정차와 무작위로 살포되는 전단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필식 동신대 6대 총장 선임

이사장엔 허진득씨

동신대학교 제6대 총장으로 김필식 현 이사장이, 제3대 이사장으로 허진득 이사장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해인학원은 5일 오전 이사회를 개최해 김필식 이사장을 총장으로 임명하고, 허진득 이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해인학원 이사회는 “2014학년도부터 대학들의 위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의 위상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경영권을 가진 총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차기 총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차기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며, 취임식은 21일 오전 11시 동신대 체육관에서 열린다.



김필식 총장

광주여성단체협의회장·광주비엔날레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을 맡고 있다.

허진득 이사장 예정자(79)는 전남 대의대를 졸업했으며, 광주기독병원 원장을 역임했다. 1987년 동신대 개교 이래 줄곧 해인학원 감사 및 이사 명 배경을 설명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태양을 피하는 방법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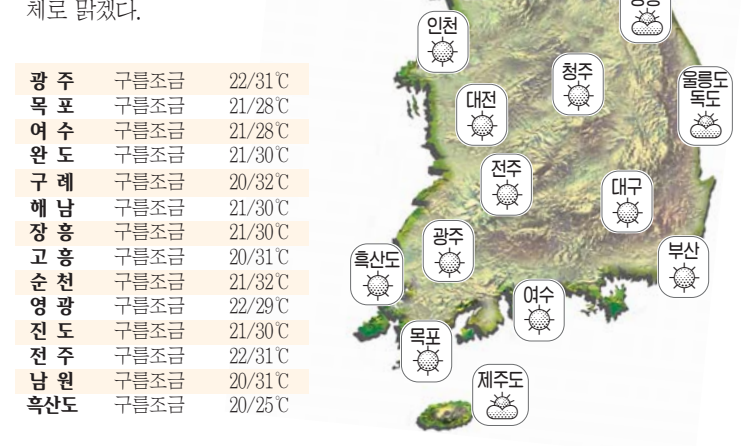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wind, and precipitation.

Table with 7-day weather forecasts for each day of the week, including temperature and weather icons.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5·18 배우러 왔어요”

인니 고위 정부 관계자들 광주 방문

부통령실 비서관 등 8명 현장답사 기념사업 논의

인도네시아 고위 정부 관계자들이 5·18민중항쟁을 배우러 광주를 방문한다.

5·18기념재단은 6일 오전 11시 50분에 인도네시아 부통령실 비서관이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총 8명)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부통령실 비서관은 국립묘지 참배 후, 5·18기념재단을 방문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관련 기념사업에 대한 환담을 나눌 계획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니콜라스 탐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방문과 아그네스 하리안토 공

사의 2010 광주아시아포럼 개막식 참석에 이어 이루어진 일이다.

조르만시아 조안 부통령실 정무담당관(책임자)과 탐리 쿠르티안토 부통령실 국제관계 수석담당자 등 5명의 비서관이 방문하고,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는 아그네스 하리안토 공사 등 대사관 직원 3명이 수행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대표자의 방문은 최근 인도네시아가 과거 수하르토 장기 독재국가 이미지를 벗으려는 행보와 관련이 깊다. 이들은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5·18민중항쟁의 현장인 광주를 직접 찾아 역사적 가치를 직접 경험하고,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2010 여름 바캉스 국내 여행 상품 (최성수기 오금인상)
2010년 7월 1일 - 8월 30일 출발!! 이제 국내 여행은 선풍기와 함께 하세요! 좋은 일정 -! 정직한 가격!
Includes travel packages for Jeju, Gyeongju, Jeonju, and other domestic destinations with prices and details.